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일동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일동은 11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생활체육학과 이상행·홍성택·진영경 교수와 박진배 총장, 홍성덕 대외부총장 및 생활체육학과 권도희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활체육학과 학과장인 홍성택 교수는 "전주대학교 체육학과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40년이 지난 현재 수많은 동문이 명실상부한 전북 체육계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40주년 준비위원장이며 체육학과 1회 졸업생인 이상행 교수는 "40년의 역사는 약 2,300명의 학과 졸업생이 전주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인으로서의 책무감과 전문성이 하나가 되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캠페인 동참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0일 교내 정문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헌혈부스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원사회봉사단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전라북도 혈액원과 함께 혈액부족 문제해결과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학기 2회 이상 실시, 지속적으로 혈액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호원대 호원사회봉사단은 매 학기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학기마다 헌혈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산내면서 홀로 어르신 생신 축하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인환, 양재웅)는 10월에 생신을 맞은 관내 저소득층 85세 이상 독거어르신 4분을 방문해 생신 밥상을 차려드렸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체 특화사업인 '함께해! 생신 밥상 차려드림' 일환으로 면 직원들과 협의체 위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생일상과 반찬 키트, 과일 등 선물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드렸다. 생신 밥상과 케이크 등 선물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외롭고 적절하 하루에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으니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신규 공무원 문서작성 교육 실시

순창군이 11일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공문서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올바른 문서 작성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고, 기관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근 2년간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서 작성과 처리 방법은 물론 자주 틀리는 공문서 작성 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 효율적인 공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문서 작성 교육에 앞서 최영일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군정 비전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33회 동리대상에 김수연 명창 선정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 인정... 11월 6일 동리국악당서 시상식 개최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에 김수연 명창이 선정됐다. 지난 4일 제33회 동리대상 심사위원회는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김수연 명창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6일 동리국악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1995~2008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며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가 되었으며, 박초월 명창의 장정인 화려한 시김새와 깊은 성음을 잘 접목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크고 안정된 소리를 구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사)미산계 수궁가 보존회 이사장을 맡아 판소리 진흥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수연 명창은 군산에서 태어나 김 근처에 있는 군산국악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 8세 무렵 김재경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판소리에 정식 입문했다. 박초월(1917~1983), 성우항(1935~2014)에게 판소리 수궁가·심청가·춘향가 등을 차례로 배웠다. 30세가 되면서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1978년 남원춘향제 명창대회에서 장원, 1989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대불량상, 1992년 KBS국악대경연 대상 등 최고 권위의 판소리 대회에서 수상하며 명창 반열에 올랐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여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판소리 명창의 업적을 남긴 사람(법인 포함)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김수연 명창과 제자들이 꾸미는 판소리 한미당 공연도 같이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격려

최영일 순창군수는 11일 군수실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안게임 소프트테니스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순창군청 소속 윤형욱·김병국 선수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격려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전라북도 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협회 오성용 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금과 함께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5명중 순창군청 소속선수 윤형욱, 김병국 선수 2명이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순창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특히 단전진 이외에도 단식 경기에서 윤형욱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어 명실상부 소프트테니스 메카임을 증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4차 미래 상상대회 융합캠프 참가 '수상'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은 호남제주권 12개 대학 연합으로 진행된 4(SAH)차 미래 상상대회 융합캠프에 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4(SAH)차 미래 상상대회는 사회(Social), 예술(Art), 인문(Humanities) 분야 전공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상상대회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을 기르고 비이공계열 전공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전주대 LINC 3.0 사업단을 비롯해 광주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등 호남제주권 LINC 3.0 사업단 12개 대학이 연합으로 주최, 올해로 5회째다. 이번 대회는 호남제주권 대학 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5~7일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전주대 일반언어문화학과 김예훈 학생팀이 제시한 '소방관 슈트에 제트엔진을 탑재해 화재 현장과 소방관을 지켜주는 POS SUIT' 아이디어가 2위(미래혁신상)를 수상해 2024년 1월 2024 CES(세계전자제품박람회) 미국 연수캠프에 참가하는 혜택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관 슈트에 제트엔진을 탑재해 화재 현장과 소방관을 지켜주는 POS SUIT' 아이디어가 2위(미래혁신상)를 수상해 2024년 1월 2024 CES(세계전자제품박람회) 미국 연수캠프에 참가하는 혜택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민원실 직원 대상 친절 교육

남원시가 11일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 민원실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친절 교육 강사는 오동환 남원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의정활동 중 시민들과 소통했던 진솔한 경험을 전하며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동환 운영위원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내 부모·형제처럼 생각하면 불친절할 수 없을 것이다"며 대민 민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새일센터, '일·생 네 컷' 사진 공모전 시상식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11일 '일·생 네 컷(인생 네 컷 인용)'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출산·육아 인식개선 조직문화 만들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혁신적 실천방안 △일·가정 균형 문화 만들기 등 총 21개의 작품이 제출됐다. 제출된 작품은 내·외부 전문가위원 심사를 거쳐 총 3편의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장려상(1명, 30만원)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원더우먼!'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보란님은 "원더우먼은 나 자신을 형상화 한 것이다. 투쟁을 하면서 청년활동도 하는 육이맘으로, 바깥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잘 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워킹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워킹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자원센터, 지평선축제 자원봉사자 마무리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는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자원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1일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종합안내, 프로그램 운영 및 교통정리, 외국어 통역봉사, 셔틀버스 승강장 운영 등 26개소에 배치되었으며, 5일 동안 총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축제를 빛냈다. 김윤권 이사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예술교육 페스티벌 참가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최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2023 전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 푸른소리 합창단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등 3개 분야에 총 11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군산부설초는 명품 예술영재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과 음악 분야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높이고, 악기 연주 기능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쉽게 서기 힘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라는 큰 무대로 군산부설초 예술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의미가 크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송신

무주군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11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재단에 총액 1,000만 원, 무주군 측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석진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0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석진숙 회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또 지역과 이웃을 위해 송신수행하는 단체로서 반듯불죽제 때 다같이 고생한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뜻깊게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는 기운찬 응원이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한 장학금과 성금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 열린 9월 2~10일까지 축제 현장에서 찾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해마다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경찰, 행복코디네이터 MC노민 초청강연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11일~12일(2일간) 경찰서 강당에서 행복코디네이터 MC 노민을 초청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웃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MC노민은 '행복과 웃음을 주는 남자'로 감동을 전해주는 행복코디네이터이다. 노민 강사는 웃음이 넘치는 직장생활을 만들어보라며 스트레스 비공이 높은 경찰관들에게 주입식 강의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강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많은 웃음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줬다. /진안=유태민 기자